

프랑크푸르트, 보행자와 자전거가 공존하는 거리 조성

<https://frankfurt.de/aktuelle-meldung/Meldungen/Fahrradfreundliche-Umgestaltungen>
<https://frankfurt.de/aktuelle-meldung/Meldungen/Fahrradfreundliche-Umgestaltungen>

<https://www.radfahren-ffm.de/629-0-Fahrradfreundliche-Nebenstrassen.html>
<https://www.radfahren-ffm.de/629-0-Fahrradfreundliche-Nebenstrassen.html>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2월, 웨스트엔드(Westend) 지역 내 그린버그(Grüneburgweg)와 체첸호프(Kettenhofweg) 거리를 자전거 친화 거리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밝혔다.

‘자전거 도시’를 지향하는 프랑크푸르트는 보행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주거지역과 어린이집, 학교, 교통밀도가 높은 지역 등에 2023년까지 최소 45km의 새로운 자전거 도로 및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시의회 결의를 통해 2019년부터 총 11개의 거리를 대상으로 보행자와 지역주민들의 편안함을 보장하고, 자전거 통행을 위한 안전한 도로를 확보하는 도시계획을 수립해 왔다.

-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횡단보도
- 노면주차 공간을 활용한 다기능 차선
- 보도 위 자전거 통행량 감소 효과
- 가로수 등 녹색효과
- 차량 통행속도 저감을 위한 요소
-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구역 확보
- 시각적 주의력을 높이는 색채 계획
- 통행속도 제한을 위한 조치(교차로 포장 등)

자전거 친화 거리의 주요 특징

이에 자전거 친화 거리는 ▲차량의 통행속도 저감 ▲보행자의 시각적 주의력을 높이는 색채 계획(픽토그램 등) ▲보도 위 자전거 통행량 감소 등을 기본 개념으로 두고, 거리별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의 핵심 개념을 선정하고 있다. 2020년 가을부터 진행되고 있는 외더(Oeder Weg) 거리 프로젝트 이후 시급성을 고려해 그린버그와 체첸호프 거리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 수립을 마치고, 지역주민과 기업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지역주민들과의 공개 질의시간을 가진 외더 거리 프로젝트의 경우 보행자를 위한 더 많은 공간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수렴하는 등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기울이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자전거 친화 거리 조성 계획

출처: 프랑크푸르트 자전거 포털. https://www.radfahren-ffm.de/media/20210217_oeder_weg_praesentation_obr3_pdf(검색일: 2021. 3. 5.)